

일본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

김 태 곤

1. 머리말

일본은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제 등에 의한 국내 농업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등 공세적 농정을 전개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04년부터 농림수산물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목표를 2015년 1조 엔으로 설정하고¹⁾,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에 ‘수출촉진본부’와 ‘수출지원실’을 설치하고, 국가·지자체·기업·관련 단체 등 관련 합동의 ‘농림수산물등 수출촉진 전국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추진체제를 갖추었다.

수출액은 2000년 3,394억 엔에서 수출촉진정책 추진이후 매년 12~16% 증가하여 2007년 5,160억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4,513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쌀, 마, 사과, 딸기, 녹차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홍콩, 미국, 대만,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며,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한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개정)」 등의 보고서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taegon@krei.re.kr, 02-3299-4241).

1) 수출목표는 당초 2013년 1조 엔을 설정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목표연도를 2015년으로 변경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수출동향을 살펴본 후, 국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제도의 실태와 한국과의 농산물무역 동향 등을 정리한다.

2.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2.1.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2010년도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4,920억 엔이다. 농산물이 58.2%, 임산물이 2.2%, 수산물이 39.6%를 차지한다.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수출총액의 0.7%에 불과하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7조 1,194억 엔으로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는 6조 6,274억 엔의 적자로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수입총액의 11.7%를 차지한다. <표 1 참조>

2.2.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농림수산물 수출추이를 보면 그동안 수출 촉진 정책의 덕분에 2007년 5,160억 엔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은 감소하였고, 2010년 다시 회복하였으나 2011년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다시 4,513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 참조>

2010년 농림수산물의 수출 상대국은 금액 기준으로 홍콩이 24.6%로 1위이며, 그 다음이 미국(13.9%), 대만(12.4%), 중국(11.3%), 한국(9.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홍콩,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북미는 15.0%로 감소하고 있다. 유럽은 7.1%나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프리카와 남미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참조>

한국은 일본이 461억 엔을 수출하는 제5위 수출시장이다. 농산물은 홍콩, 미국, 대만에 이어 4위이며, 임산물은 중국, 필리핀에 이어 3위, 수산물은 홍콩, 중국, 미국에 이어 4위로 일본의 중요한 수출 상대국이 되고 있다. 한국의 5대 수입 품목은 명태, 담배, 알코올음료, 돔(활어), 소스, 혼합조미료 등이다.

2.3. 주요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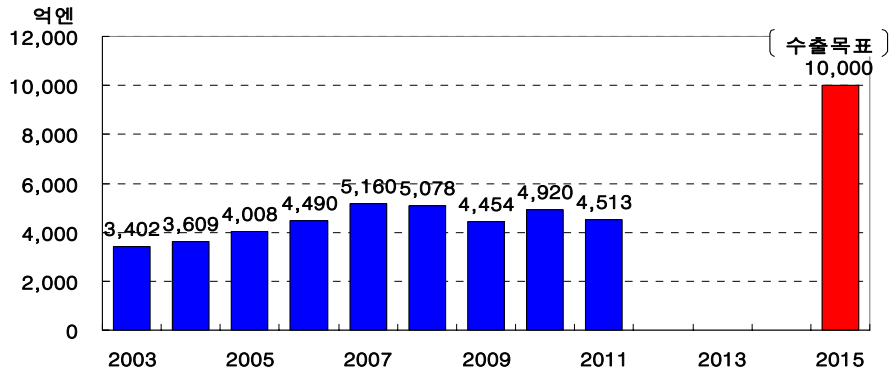
수출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가공식품이 2010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26.9%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축산물(8.0%), 곡물(4.3%), 채소·과일(3.5%), 기타(15.5%) 순이다. 수산물의 경우 가공품을 제외한 수산물이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가공품이 11.8%를 차지한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품이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38.7%를 차지하며, 최근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농림수산물 무역액(2010)

구분		금액(억 엔)
수출	총액	673,996
	농림수산물(A)	4,920
	농산물	2,868
	임산물	106
	수산물	1,950
수입	총액	607,650
	농림수산물(B)	71,194
	농산물	48,281
	임산물	9,204
	수산물	13,709
농림수산물무역수지(A-B)		△ 66,274

자료: 농림수산성, 20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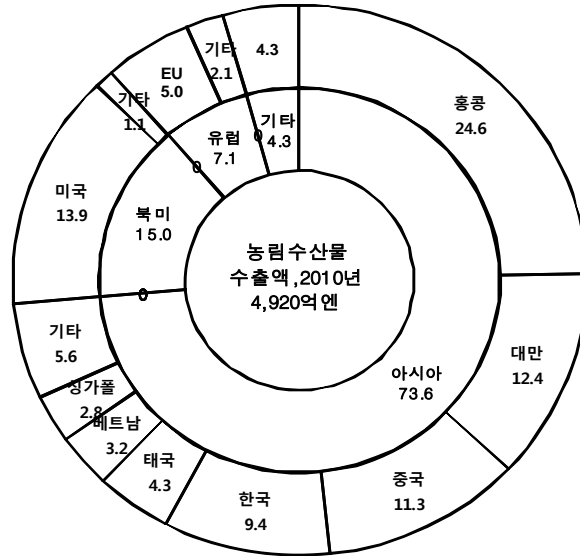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및 수출목표액



자료: 농림수산성, 2012. 2.

그림 2 지역별·국별 농림수산물 수출액 구성비, 2010년

단위 : %



자료: 농림수산성, 2011. 9b.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표 2>와 같다. 종합 수출전략에 따라 11개 품목류에 대해 중점 개별품목과 중점 국가를 지정하여 수출촉진을 도모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예를 들면 쌀 또는 쌀 가공품을 보면 쌀과 햅반이 중점 품목이며, 중점 국가는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이다.

쌀 수출량은 아직까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기 중점 수출 국가를 포함하여, 중국,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37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2010년도 수출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1,898톤, 금액은 27% 증가한 6억 9,100만 엔에 달한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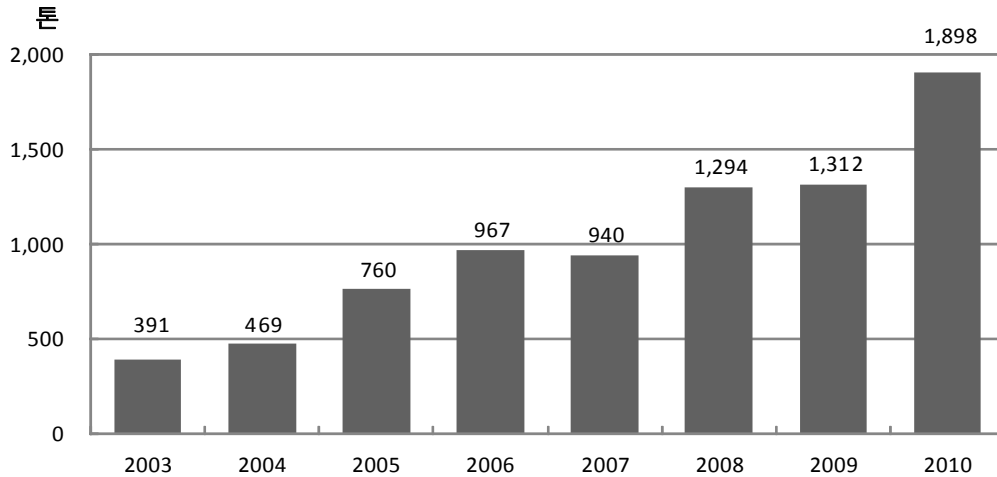
특히 중국에 대한 쌀 수출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12월 농림수산성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농업 발전 집단과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1년 1월 중국 농업 발전 집단은 일본을 방문하여 수출촉진회의와 쌀 수출 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 2 11개 중점품목 및 중점국가

중점 품목	중점 개별품목	중점 국가
① 쌀·쌀 가공품	쌀, 햅반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캐나다
② 채소·채소 가공품	마, 딸기, 멜론, 고구마, 무, 양배추, 상치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③ 과일·과일 가공품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감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 UAE, 러시아, 미국, 캐나다
④ 화훼	분화, 분재, 식목류, 묘목류, 절화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태리, 러시아, 미국
⑤ 우유·유제품	아이스크림, 치즈, 우유	중국, 대만, 홍콩
⑥ 식육·식육가공품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대만, 홍콩, 싱가포르, UAE, 미국, 캐나다
⑦ 차	녹차	중국,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⑧ 수산물·수산가공품	가리비, 고등어, 건조해삼, 냉동다랑어, 냉동연어, 냉장명태, 방어, 돔, 김, 통조림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미국, 캐나다, 남아공, 호주
⑨ 특용임산물	신선버섯류, 목탄, 건조표고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⑩ 가공식품	청량음료, 초콜릿, 캔디, 쌀과자, 건조면, 참기름, 된장, 추잉검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캐나다
⑪ 목재	제재, 가공재	한국, 중국

주 : 2009년 6월 21일 현재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성, 2011. 9b.

그림 3 쌀 수출량 추이(2003~2010)



자료 : 농림수산성, 2011. 9a.

3. 농림수산물 수출지원제도

3.1. 추진 배경과 의의

일본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의 영향으로 국내시장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일본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WTO와 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인하 등의 요인으로 일본 농림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중전의 시장개방에 대한 수세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개방의 효과를 활용하는 ‘공격적 농정’의 일환으로 구조개혁 가속화, 바이오매스 생산 확대와 함께 수출정책을 강화하였다. 일련의 수출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 2004년, 농림수산성에 ‘수출촉진실’ 설치
- 200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수출촉진 장려 결정
- 2005년, ‘농림수산물등수출촉진협의회’와 ‘지역 수출촉진 협의회’ 설치
- 2006년, ‘21세기 신농정 2006’에서 수출목표 설정
- 2007년, ‘농림수산물 수출 종합전략’ 수립·추진
- 2009년, ‘농림수산물 수출 종합전략’ 개정·추진

이와 같은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이 가지는 의의는 산지나 지역에서는 새로운 판로가 확대되어 농가소득이 증대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다. 또한 수출은 국내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경감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한 국내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경영에 대한 의식개혁을 가져온다.

농림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면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자급률이 향상되어 식량안보에도 공헌한다. 일본의 식문화를 해외에 보급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도 된다는 점 등에서 농림수산물 수출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2. 농림수산물 수출종합전략 수립(2007년)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은 농업생산을 진흥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농림수산성은 2015년까지 1조엔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본 식품이나 식문화의 세계적인 붐 등에 조준하여 ‘시장 개척’과 상대국의 ‘수출장애요소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출 종합전략은 2007년 수립되어 실천되고 있으며, 2009년 개정되어 계속되고 있다.²⁾ 이 전략은 수출사업자의 성숙도(수출 의욕단계, 수출 시험단계, 수출 실천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4 참조>

- ① 수출환경 정비대책
- ② 품목별·국가별 전략적인 수출촉진대책
- ③ 의욕 있는 농림어업인 지원 대책
- ④ 일본 식품·식자재의 해외수요 개척대책

3.2.1. 수출환경 정비 대책

농산물은 수출상대국이나 품목에 따라 검역이나 식품 위생 면에서 수출이 금지되고 있거나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을 비롯하여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대하여 상대국과 협의를 거쳐 수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수출환경이 정비된 이후에는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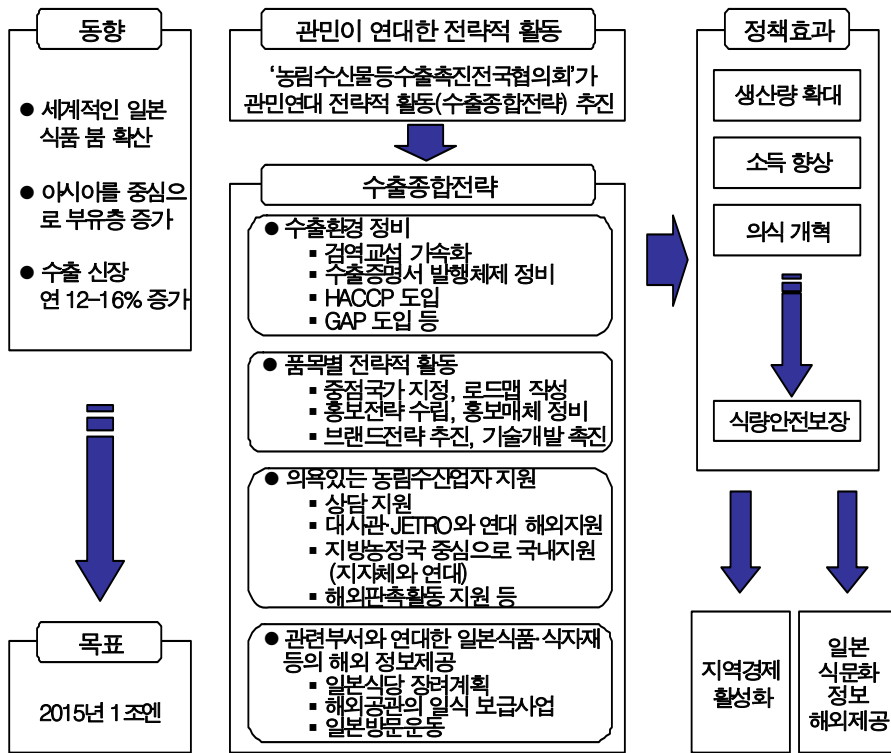
수출상대국 정부의 요구나 상대국의 제도 등 수출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 ① 검역협의를 가속화에 의한 검역문제 정비
- ② 수출증명서 발행체제 정비
- ③ 가공시설 등의 HACCP 도입
- ④ 생산단계의 GAP 도입
- ⑤ 유기 JAS 규격의 동등성 심사의 신속화
- ⑥ 수출확대 기대품목의 관세 철폐 또는 감축

이와 관련한 최근의 성과를 보면, 2008년 5월 대중국 쌀의 수출조건이 확립되었으며, 수산물 수출조건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2월 대러시아, 동 4월 노르웨이·스위스, 2009년 3월 호주·우크라이나 등과 현안이 해결되었다.

2) 농림수산성, 2009. 6.

그림 4 농림수산물 수출종합전략 개요



3.2.2. 국가별·품목별 전략적 수출촉진

농림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상대국이나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수출을 둘러싼 사정이나 과제, 필요한 대책은 대상 국가별과 품목별로 차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쌀과 쌀 가공품을 비롯한 11개 품목(중점 품목)과 주요 상대국가(중점 국가)를 대상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특히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조치를 강구하는 ‘특정 중점품목’과 ‘특정 중점지역’을 설정, 각종 수출촉진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시책은 품목별 수출비즈니스 모델 확립, 홍보전략 수립, 홍보매체 정비, 지적 재산전략·브랜드전략 추진, 공급기반 강화 등이다. <표 2 참조>

- ① 중점품목과 중점국가 설정
- ② 품목별 로드맵 작성

- ③ 품목별 수출 비즈니스모델 확립, 홍보전략 수립, 홍보매체 정비
- ④ 지적재산전략·브랜드전략 추진, 공급기반 강화

3.2.3. 의욕 있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탐색하는 업자나 경영발전을 위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자의 의욕을 살려서 실제 수출에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농림어업인과 상공업자의 연대를 통하여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수요 개척을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①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 제공
- ② 상세한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 확충
- ③ 의욕 있는 농림수산업자의 해외 판촉활동 지원
- ④ 세미나를 통한 수출정보 제공
- ⑤ 농상공 연대를 통한 신상품 개발, 생산, 수요개척 촉진

3.2.4. 식문화·식자재 등에 관한 해외 정보제공

일본 요리나 식품은 해외에서 건강식이나 맛으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의 식문화와 식자재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관계 부처나 관련 단체 등의 각종 이벤트와 연대하여 효과적인 일본의 식문화와 식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① 중점적·전략적인 이벤트 개최
- ② 일본식당 장려계획과 연대
- ③ 해외공관의 일식보급 사업(WASHOKU-Try Japan's Good Food)³⁾
- ④ 관계부처의 관련사업 연대⁴⁾

여기에 추가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식 150선을 소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① 일본식 10선

일본 식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본 요리 중에서 대표적인 10종류를 선정하여 그 소재나 조미료, 제공방법 등을 소개한다.

3) 해외공관이 주최하는 회식 등에서 일본의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일본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외무성, 국토교통성의 관련 사업과 연대하여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 국제교류기금, 국제관광진흥기구 등의 해외사무소·시설을 정보제공 거점으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가공식품 40선

상미기간⁵⁾이 비교적 길고 향후 해외수출이 기대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콘테스트 방법으로 40점을 선정하여 국내 관계자의 참고사례로서 소개한다.

③ 수출추진사례 100선

전국 각지에서 수출 활동을 하는 업체에게 참고자료서 활용하기 위해 수출활동 100대 사례를 수집, 애로사항이나 해결방안, 수출 메리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다.

3.3. 추진체계 구축

3.3.1. 농림수산물에 ‘수출지원실’ 설치(2004년)

농림수산물의 수출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제로서 구축한 것이 ‘수출지원실’ 설치이다. 농림수산물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산농산물·식품 수출촉진본부’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나 지자체, 단체 등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체가 대신관방 국제부 국제경제과에 설치한 ‘수출지원실’이다.

지원 분야는 ① 품목별 전략적 수출촉진, ② 의욕 있는 농림어업인 지원, ③ 수출촉진홍보 등이며, 사업대상자의 성숙도에 따라 ① 수출의욕단계, ② 수출시험단계, ③ 수출실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3.3.2. ‘농림수산물등 수출 촉진 전국협의회’ 설치(2005년)

일본의 고품질이면서 안전한 농림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4월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 전국협의회가 설립되었다.⁶⁾

회원은 목적에 찬동하는 관계 단체, 지자체, 관련부처 등으로서 농림수산 관련단체를 비롯하여, 식품산업·유통관련단체, 외식·관광관련단체, 경제단체, 47개 도도부현, 그리고 관련 부처 등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화

5) 상미기간(賞味期間)은 BBD(Best Before Date)라고도 하며 제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품질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6) 사무국은 농림수산물 대신관방 국제부 국제경제과 수출촉진실에 두고 있다.

- ②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에 관한 보급지도 및 홍보
- ③ 수출촉진에 관한 방안 검토 및 실시
- ④ 협의회 회원의 활동 연대 및 조정
- ⑤ 협의회 활동에 관계되는 조직과의 연대 등

이 협의회는 지역단위로 수출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수출 촉진협의회와 연대하여 수출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3.3.3. '지역 수출촉진 협의회' 설치(2005년)

지역단위의 지원체제로서 '지역 수출촉진 협의회'가 있다. 농림수산물성 지방농정국과 관계 기관이 연대하여 지역별로 지원하는 기구이며, 전국에 9개 협의회를 두고 있다.

각 지방농정국이 사무국이 되어, 관계 부처의 지방지부국, 지방자치단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동식물검역소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내 선도적인 사례 정보수집, 수요 수집 등 지역에서 지원하는 체제이다. 농림수산물성의 위탁사업인 '수출촉진세미나'와 '수출 오리엔테이션(전시 상담회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 수출촉진 협의회의 각 지방농정국이 지역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림 6 참조>

그림 5 농림수산물등수출촉진협의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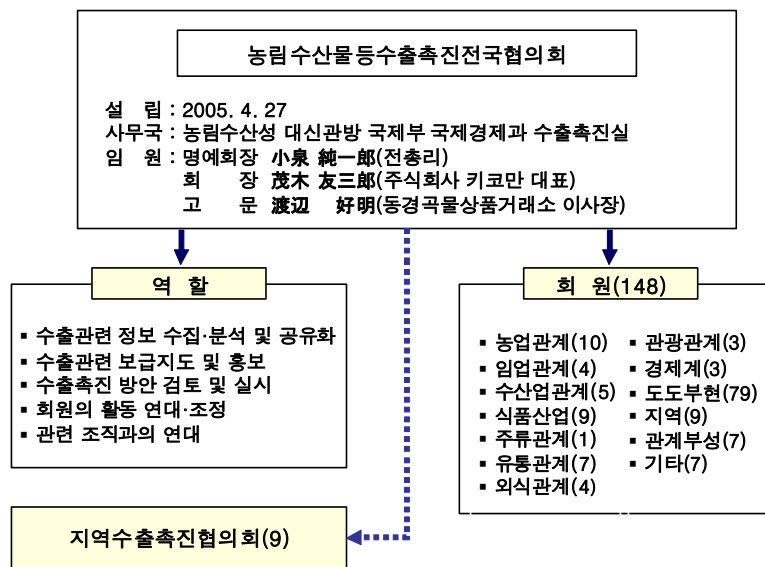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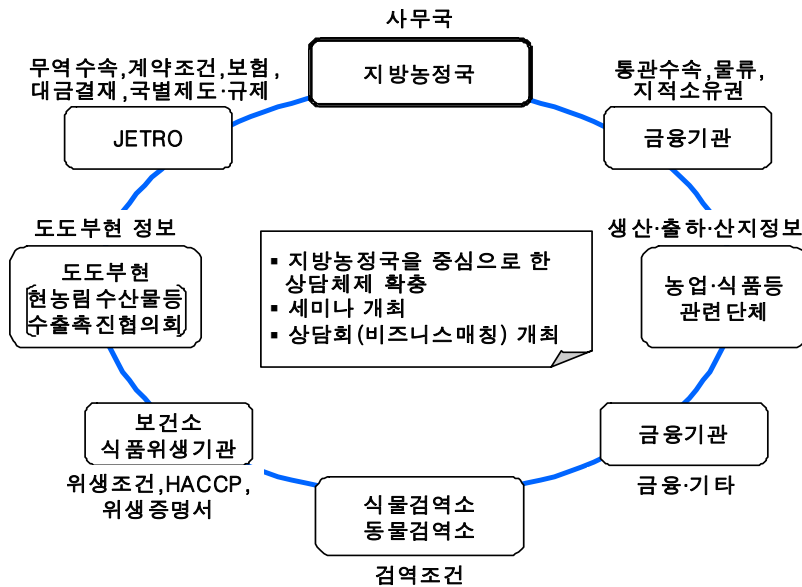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수출촉진협의회 개요



3.3.4. NPO법인 일식 해외보급 추진기구(JRO) 설립(2007년)

일식의 해외보급 확산을 통하여 일본의 식문화와 식자재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NPO법인 일식 해외보급 추진기구(JRO)를 설립하였다.

활동 내용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활동주체로서 현지 조직화를 지원하는 도시에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해외 현지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 기관지 발행과 일본 식문화의 조리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재 등을 작성하는 사업, 강습회 등을 통한 인재육성, 해외에서의 일식 니즈 파악이나 현지 PR 활동 등이다.

2012년 1월 현재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 런던, 암스테르담, 로마, 파리, 시드니, LA, 모스크바, 서울 등 세계 21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지역별 일식당을 보면 아시아에서 6,000~9,000개 점포, 유럽에서 2,000개 점포, 북미에서 10,000개 점포, 중남미에서 1,500개 점포, 오세아니아에서 1,000개 점포 등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4. 안·일 간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4.1. 일본의 대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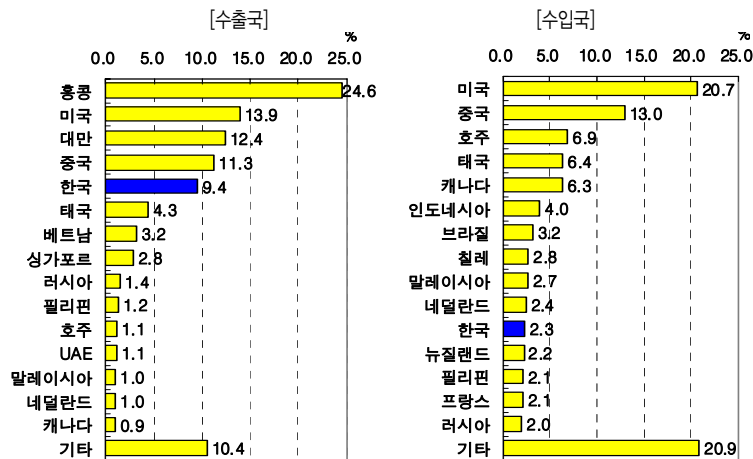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간의 농림수산물 무역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의 제5위 수출국이면서 제11위 수입국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615억 엔, 점유율은 9.4%이다. <그림 7, 8 참조>

최근까지의 추세는 2007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수출액과 점유율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7년까지 수출증대에 기여한 품목은 명태, 돔, 고등어 등 수산물 중심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여 대한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품목은 청주와 맥주 등의 알코올음료, 담배 등이다. 맥주의 대한국 수출은 2008년 5,897k(7.0억 엔), 2009년 6,025k(7.3억 엔), 2010년 8,348k(10.0억 엔)로서 한국은 일본의 제1위 수출국이다. 청주는 2008년 1,529k(6.7억 엔), 2009년 1,954k(8.3억 엔), 2010년 2,590k(11.7억 엔)로서 미국과 홍콩에 이어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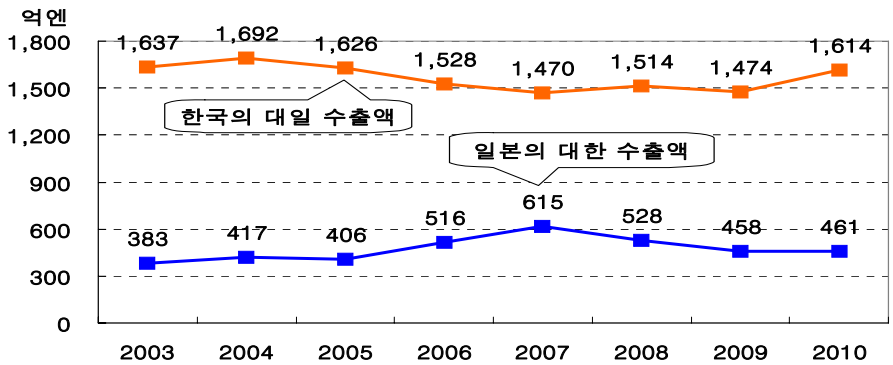
2010년 현재 수출금액기준으로 상위 10대 품목은 ① 명태(48.0억 엔), ② 담배(24.5억 엔), ③ 알코올음료(23.5억 엔), ④ 돔(22.2억 엔), ⑤ 소스혼합조미료(19.9억 엔), ⑥ 종자(16.1억 엔), ⑦ 멩게(14.5억 엔), ⑧ 배합사료(12.8억 엔), ⑨ 고등어(11.3억 엔), ⑩ 과자(10.8억 엔) 등의 순이다.

그림 7 일본의 농림수산물 무역액 점유율(2010)



자료: 농림수산성, 2011. 4.

그림 8 한국·일본간 농림수산물 무역액 추이(2003~2010)



자료: 농림수산성, 2011. 4.

4.2. 일본의 대한국 수입

일본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입국이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010년 7조 1,194억 엔에 달한다. 이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즉 한국의 대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614억 엔으로 전년대비 9.5%나 증가하였으나 점유율 2.3%로서 제11위에 불과하다.⁷⁾ 엔화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2004년까지는 증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감소, 2007년 이후 증가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10년 한국의 수출증가에 기여한 품목은 다량어·참치류, 알코올음료, 가당조제식품, 바지락, 굴, 절화 등이다. 반면에 수출이 감소하는 품목은 신선·건조과일, 톳, 미역, 담배 등이다.

2010년 수입금액기준의 대한국 상위 10대 수입 품목은 ① 다량어·참치류(275.0억 엔), ② 알코올음료(211.2억 엔), ③ 가당조제식품(82.0억 엔), ④ 기타조제채소(75.2억 엔), ⑤ 활어(기타)(69.4억 엔), ⑥ 신선채소(67.3억 엔), ⑦ 전복(33.5억 엔), ⑧ 바지락(32.0억 엔), ⑨ 제조제품(30.8억 엔), ⑩ 삼치(28.2억 엔) 등의 순이다.

양국 간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한국이 1,614억 엔 수출하고 461억 엔 수입하여 1,15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증가추세이나 일본은 감소추세이어서 향후 한국의 흑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 2007년도 한국의 대일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470억 엔이며,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1.7%로서 제14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액과 점유율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

‘알코올음료’에 대해서는 한국은 막걸리와 소주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본은 맥주와 청주가 늘어난다. 2010년 양국 간의 알코올음료의 수출금액은 한국이 211.6억 엔, 일본은 23.5억 엔으로서 한국이 188.1억 엔의 흑자를 내고 있다. 한국의 대일 1위 수출 품목은 ‘다랑어·참치류’인 반면에 일본의 대한 1위 수출 품목은 ‘명태’인 것도 대조적이다. 담배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일 수출은 감소하여 20위 품목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대한 수출은 증가하여 2위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5. 요약 및 특징

농산물 수출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농림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판로가 확대되고 농가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출은 국내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경감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경영에 대한 인식개혁을 가져온다. 수출이 증가하면 지역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출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면 식량자급률이 향상되어 식량 안보에도 공헌한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등에 의해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배경으로 일본은 민관협력 하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전략’과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수출목표는 2015년 1조 엔을 설정하고, 농림수산성에 수출촉진실을 설치하여 예산확보와 수출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민 협력과 국가·지방 연대의 협의회를 설치하여 ‘시장개척’과 상대국의 ‘수출장애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식문화 해외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세계적인 일식 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득향상 등을 배경으로 농산물 수출은 그동안 순조롭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엔고 등의 영향으로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간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2010년 현재 한국이 1,614억 엔 수출하고 461억 엔을 수입하여 1,153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증가추세인 반면 일본은 감소추세이어서 향후 한국의 흑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일본은 주로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인 반면에 한국은 신선 농산물 중심이다.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검역은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농림수산성. 2007. 5.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 .
 . 2009. 6.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개정)」 .
 . 2011. 4. 「2010년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 2011. 9a. 「쌀을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
 . 2011. 9b.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대책 개요」 .
 . 2012. 2.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수출실적(속보치)」 .

http://www.maff.go.jp/shokusan/export/e_info/pdf/2012_sokuhouchi.pdf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index.html#3